



# 한미 FTA에서 쌀 시장만 지키면 농업개방 겁낼 필요 없다?

이혜영 정책조정실장

**최** 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농업부문에 경쟁력 없는 품목의 비중은 28.7%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경쟁력 없는 품목의 생산비중은 2%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쌀 시장의 추가개방을 반드시 저지하고 경쟁력 없는 2%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결론을 맺었다. 또한, 이 수석은 기고문에서 '1차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라는 강을 넘었고, 2차적으로는 한칠레 FTA라는 강도 건넜다. 한미 FTA는 세 번째 강이다. 한국은 한미 FTA 농업개방이라는 강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했다.

문제는 분명하다. 이는 그 동안 농업회생을 외쳤던 현 참여정부가 UR협상의 실패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을 모두 개방해도 된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미FTA 강행을 전제로 한 짜여진 자료에 근거하여 경쟁력 운운하면서 개방하는 것은 농축산업을 사지로 몰면서도 모

른 척 하자는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근거없는 낭설에 불과하며, 오는 4차 협상에서 수정양허안을 제시해야 하는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우리 낙농산업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하나?

경쟁력 없는 품목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경쟁이 가능한 품목이 주로 축산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니, 아마도 낙농·유제품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 아무튼, 이 수석이 말한대로라면야 얼마나 좋겠나만은 조석진 교수의 'DDA 이후 낙농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규제완화 조치가 유제품에 국한되든 전체 농산물로 확대되든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같은 연구가 미농무성(USDA)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한미 FTA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낙농산업은 이미 UR 협상의 실패를 경험했다. 개방이전에 우유수급 조절기구로 만들었어야 할 낙농진흥회도 결국은 이후에 땀질식으로 만들어져 그 피해를 농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또 농가는 농가대로 현재의 상태로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 낙농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국단위 제도개편의 틀을 만들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UR 협상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이다. 그런데도 지난해부터 논의해온 낙농대책 논의가 1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쉽게 풀릴 듯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낙농주체 모두가 전국단위쿼터제 실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속내는 달라 보인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니,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여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하고 있다. 농가들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제도개편인지도 모른다. 정작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낙농의 최대 주인인데도 말이다.

우리 낙농산업의 현실을 좀더 냉혹하게 바라보자. 지난 한칠레 FTA와는 달리,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결과에 따라 이후 낙농

선진국과의 FTA에 영향을 미칠테니 그 중요성에 대해 부인할 사람은 없다. 일시중단된 DDA 협상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다. 대외무역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각국에서는 그에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만들고 있다. 특히, 낙농·유제품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FTA에서 제외 또는 재협의를 및 단계적인 관세철폐의 방법을 택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호주와의 FTA 체결에서 유제품을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는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또 낙농단체도 이를 환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유제품 시장형성 조차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서, 언제까지 그나마 현재의 상황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혹자는 농촌에서 낙농가가 그래도 살만하다는 소리를 한단다. 모르는 소리다. 현 낙농의 위기를 모두가 이미 알고 있기에 제도개편 논의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한미 FTA 반대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지만, 이에는 아랑곳없이 오는 23일부터 제주도에서 4차 협상이 시작될 터이고, 한미FTA 일정은 예정대로 차곡차곡 진행될 것이다. 분명 우리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금번 낙농제도 개편은 낙농가 한명 한명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보자. ☺